
2021년 제31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7. 30. ~ 8. 5.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7. 30.	시청률	0.000

【총 평】

인천 서구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아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의 수고를 잘 부각시켰다. 소통과 공감의 지평을 넓히는 '국민 리포트'의 취지에 어울렸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섬 '영광 송이도'와 석탄을 캐던 광부들의 갱도를 미디어 아트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태백시 통리탄탄파크' 등 이색적인 구성이 시선을 끌었다. 인천의 역사를 품은 나무들을 볼 수 있는 '나무가 들려주는 인천 이야기' 전시회와 '이건희 기증 대규모 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시 정보를 제공했다.

【구성 및 내용】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시민 폭염과 사투
인천 서구의 선별진료소와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찾아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소개했다. 특히 의료진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하루 평균 2천명 가까이 진료를 해야 하는 의료진의 수고를 잘 부각시켰다.
- 유기견 증가 속 입양문화 개선 목소리 커져
유기견을 입양하여 이제 한 식구로 같이 살아가고 있는 두 가정을 보여주고, 각 보호자들을 소개했다. 특히 반려동물 입양에 관한 보호자의 마음가짐, 법적 규제 등에 대해 알려주었다. 최근 법무부에서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개정 입법을 예고했다.
- 해외여행 갈증 푸는 '아시아 문화체험' 즐겨
광주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 문화 체험 교실을 실시했다. 외부 정원에서 동남아시아 느낌으로 꾸며진 짚파라솔 아래에 앉아 체험교실 참가자들이 태국의 책 만드는 기법을 체험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매달 새로운 체험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 역사를 품은 '인천의 나무'를 보다
우리나라의 근현대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인천의 나무들을 소개했다. 인천의 역사를 품은 나무들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유적지를 취재하고 재물포 구락부에서 열리는 "나무가 들려주는 인천 이야기"라는 전시회까지 소개했다.
- 석탄 캐던 갱도, 빛 예술로 거듭나다
광부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폐갱도를 아름다운 영상과 LED 조명을 통해서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다. AR 체험관을 비롯해서 '통리탄탄파크'와 '오로라 파크'까지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태백의 매력을 보여주었다.
- '영광 송이도' 찾아가고 싶은 33섬 선정
전남 영광군 송이도는 하얀 몽돌로 유명하며 물이 깨끗하고, 해식동굴이 자랑이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사진찍기 좋은 섬'으로 우리나라 최대 왕소수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이곳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있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1. 7. 30.	시청률	0.080

【총 평】

최근 코로나19 4단계로 인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세계 각국의 코로나 상황과 대책을 소개하며 8월부터 백신이 다량 입고되어 당초 목표로 했던 11월까지 집단면역이 차질 없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준 기획이 탁월했다.

‘경제&이슈’는 선도형 산업구조로 조기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공정한 노동 전환을 위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부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기획이 돋보였다. 지난 7월 22일 한국판 뉴딜 2.0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밝힌 ‘선도형 산업구조로 조기 전환,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발표에 맞춰 정책 배경과 필요성을 언급해 수용성을 강화했다. 경제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한 점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알뜰신잡’에서는 ‘여름철 당류 과다 섭취 예방법’을 다뤄 여름철 건강팁 소개로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경제&이슈’는 선도형 산업구조로 조기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공정한 노동 전환을 위한 지원에 대해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화로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석탄발전, 중장기적으로는 철강, 정유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화는 산업전반에 걸쳐 고용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을 하자는 취지로 피해 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2050년까지 전세기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자동차와 석탄산업의 경우에는 신산업 분야로의 사업 재편과 전환을 지원하고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전환, 전직, 재취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역의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지원한다. 철강, 정유, 시멘트 업종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덜하나 점진적으로 고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산업구조 전환 및 고용 전망을 상시 분석한다.

AI의 등장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 직종에서 일자리 감소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근 고용률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이를 통한 일자리 감소 정도가 큰 직종군으로 상점판매원, 콜센터요원, 금융사무원, 검침원, 단순제조종사원을 꼽고 있다.

이에 재직자의 적응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술 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강화하고 기업에서도 디지털전환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구직자 적응을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해당 분야 인력의 향성을 확대한다.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21. 7. 30.	시청률	0.057

【총 평】

도쿄 올림픽 소식을 깊이 있게 전달하고 주요 뉴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백신 공급, 접종예약 정보 등을 상세히 보도한 기획이 돋보였다. 올림픽 소식에서는 양궁 부문에서 올림픽 3관왕이 탄생한 쾌거와 태극 전사의 선전으로 도쿄 올림픽의 빛나는 순간들을 종합적으로 전달해 도입부의 주목도를 높였다.

주요뉴스는 모더나 백신 8월공급 소식과 함께 18세-49세 10부제 접종 예약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보도로 심층성과 정보성을 높였다. 생계급여 대상과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리포트와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 관련 리포트는 경제관련 생활정보 제공과 정책알림이 역할이 돋보이는 아이টে이였다. ‘오늘의 브리핑’은 국무총리의 8월 백신공급 일정 발언을 통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과 정책홍보의 가교역할이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양궁의 안산 선수가 개인전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이번 대회 3관왕의 쾌거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비롯해 양궁에서 많은 금메달 소식을 전했다. 여자 펜싱 에페 단체전에서는 9년 만에 은메달, 남자 사브르 단체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소식을 전했다 조구함 선수는 유도에서 첫 은메달을 안겨줬고 황선우 선수는 자유형에서 놀라운 성과 등 태극전사 선전과 도쿄올림픽의 빛나는 순간들을 전달했다. 이 밖에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서 양궁의 안산 선수에게 “안산 선수 대견하고 장하다”며 한국 최초의 하계올림픽 3관왕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한국과 우즈베크 외교장관은 양국간 문화, 인적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회담을 진행했다는 소식을 비롯해 외교부가 해외안전여행 등이 담긴 영사 포털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에 이기현, 반부패비서관에 이원구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8월의 6.25전쟁 영웅으로 송효석 육군 소위를 선정했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을 지원하는 식약처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 해 동기에 비해 약 10% 감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클릭K’는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국민 먹거리 안전 정책을 소개했다. 지난해 중국의 알몸김치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바 있다. 이에 수입김치를 대상으로 HACCP이 적용된다. 어린이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제도로써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100인 이하 어린이집 등이 등록 대상이다. 외식의 조리 환경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들이 공유주방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의 브리핑’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모더나 백신 공급으로 김부겸 총리는 “다음 달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거리두기 효과의 척도인 이동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의 적극 동참을 부탁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7. 31.	시청률	0.121

【총 평】

'천생 도시 여자의 나 홀로 귀촌'편은 귀농, 귀촌은 은퇴 후 나이드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해준 주제였다는 점에서 새로웠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연상하게 하는 김소영 작가의 정선 생활을 통해서 쉽 없이 바쁘게 사는 도시인들이 놓치기 쉬운 삶의 또 다른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정선의 윤기석 가루와 콜라보레이션 해서 만든 작품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잘 그려내었다. 정선 지역 아동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미술 지도하는 모습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선한 귀농의 뜻을 볼 수 있어서 훈훈했다.

【구성 및 내용】

산티아고 순례길을 5번이나 다녀오고 나서 김소영 작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강원도 정선 귀촌으로 이어졌다는 시작이 흥미로웠다. 삶을 만족하는 법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배웠으며 삶에서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내면의 고요함이 작업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작가의 가치관이 제대로 잘 드러났다. 특히 삶의 형태의 다양함속에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는 귀촌의 바람직한 소재였다.

'도화 포레스트'에서 작업하는 과정이 영화처럼 재미있게 그려졌고 예술가이자 1인 사업가로의 모습도 잘 설명되었다. 작품이 꽃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도화라는 작가의 이름으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정선의 특산물 윤기석 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동강 할미꽃' 등의 작품들을 정선 5일장에서 감상할 수 있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많아질수록 도시가 아닌 곳에서도 작품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는 지역민의 메시지가 좋은 구성이었다.

정선 5일장의 먹거리와 특산물 소개 등 볼거리와 재미의 요소가 더해져 풍성했고, 지역 아동 센터에서 미술을 지도하는 모습, 우체국을 이용하는 모습, 맛있는 밥집과 좋은 곳을 SNS에 올려 지역홍보와 귀촌인으로서 이웃과 함께하는 모습이 잘 그려졌다.

특히 텃밭에 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충족하며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모습이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내레이션과 어울렸다. 텃밭의 옥수수 농사를 지을 때 비닐 대신 땅에 종이를 깔고 농사를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는 모습,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정선 지역 아동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지도하는 모습 등이 진실성 있게 보였다.

나 홀로 귀촌이라는 용기 있는 삶을 선택한 작가의 모습을 통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얽매어있는 고정관념을 깨야 새로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하고 싶은 마음을 키우는 것 등 여러가지 가치들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8. 1.	시청률	0.005

【총 평】

최근 13개월만에 복원된 남북통신연락선에 대한 의미와 배경, 전망 등을 다각도로 순발력있게 분석해본 기획이 돋보였다. 또한 도쿄 올림픽에는 남북단일팀 출전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과거 스포츠 교류 사례를 되짚어보면서 남북 단일팀 구성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 기획이 뛰어났다.

‘친특’에서는 정전협정 68주년인 지난 달 27일 복구돼 남북통신 연락이 재개된 내용에 대한 의미와 배경, 과정, 비화, 전망 등을 상세히 분석했다. ‘이슈 텔링’은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들을 전달했다.

특히 화상정상회담 준비와 별도로 인도적 대북 지원, 추석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남북 스포츠 교류가 가능하도록 ‘남북단일팀 협의 상설기구 설치’ 등의 제안은 정책적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제안이었다.

【구성 및 내용】

‘친특’은 약 13개월 만에 재개통된 남북통신연락선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고 ‘이슈텔링’은 지난주에 이어 남북 스포츠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주었다. 약 13개월 만에 남북공동 연락사무소의 남북통신연락선이 재개통되었다. 하루 2번 별다른 일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연락이 이뤄진다. 이외 팩스로도 연락이 이뤄질 수 있다. 중요 회담 약속, 남북 간 통행 허가 등 남북 간 교류 및 왕래를 위한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다.

남북통신연락선이 재개된 이유는 지난 4월부터 남북 간 친서를 교화하며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하자는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친서에서는 주로 코로나19 위기의 극복과 남북이 협력하자는 내용이 다뤄졌다.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이며,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스포츠 스타 여자 유도의 계순희 선수는 전 세계가 인정한 유도선수로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일본 최고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연기되지 않았다면 북한과의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도 어떤 시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특히 역도 간판스타인 림정심 선수는 올림픽 3연패를 노리고 있었는데 참가가 무산되었다. 남북이 단일팀으로 경기에 참여한 것은 큰 대회를 기준으로 5번이 있었다.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단일팀으로 참여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평창올림픽에는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구성되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남북 단일팀 구성이 무산되었지만 향후 남북 화합을 위해 지속적 교류가 필요하다. 올림픽은 매년 있을 것이므로 기회는 계속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 스포츠에 대해 항상 논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1. 8. 1.	시청률	0.142

【총 평】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상반기 이슈들을 살펴보고, 하반기에 달라지는 법규정 및 정책적인 면을 점검했다. 특히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기본을 바로 세우고 정책을 점검한다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다가갔다.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중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와 중국산 쓰레기 김치의 수입 해결 대안으로 '수입 김치 해썹 의무',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온라인 그루밍 처벌' 등을 현실성 있게 접근해 몰입감을 높였다.

'수입 김치 해썹 의무'는 수입 김치에 대한 해썹(HACCP)인증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히 접근한 점이 돋보였다. 코로나19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시간이 늘며 온라인 상에 성적 행위를 권유받는 행위가 급증하고 최근에는 게임으로 까지 번지는 심각한 상황에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법규 강화는 시의적절했고, 경각심을 주었다.

【구성 및 내용】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무엇이 변하는지 크게 세가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미비한 점이 보완되어 10월부터는 강화된 규범이 시행된다. 둘째, 경악을 넘어 공포감까지 조장했던 불결한 김치 절임과정 동영상, 국민들의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기위해 식약처가 제도를 강화했다. 셋째,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미리 차단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이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거나 제대로 된 처벌이 없는 정책 3개를 골라 하반기부터 변화와 조정이 실행됨을 알려주었다.

첫째,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은 가해자에게 적합한 처벌이 없어서 피해자들의 괴로움은 더 컸다. 2019년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원성을 받았던 것이 올해 10월부터는 규정이 강화된다.

둘째, 중국산 절임배추에 대한 것으로 불결한 절임과정의 동영상을 보고 김치를 필수적으로 먹어야하는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규제를 강화하여 10월부터 실시되는 수입김치에 관한 해썹인증마크의 안전성과 의무를 강화했다.

셋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디지털 성범죄를 단죄할 방법은 없을까? 성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아이들이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범죄에 노출되는 너무 쉬운 방법이 개탄스럽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것일지 아는 우리 어른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마치 그 피해자의 아버지처럼 소리내어 울고 싶었다. 오는 9월 24일부터 아동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고 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1. 8. 1.	시청률	0.070

【총 평】

경북 영천시의 사라진 '마을 진입로'를 집단 민원 조정으로 해결한 사례와 익산시가 도시가스 사각 지대인 마을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한 위민행정 수범 사례를 소개한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 마을 진출입로 개설은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정에 나서 국가철도공단과 영천시가 받아들여 해결했다. 도시가스 사각지대인 익산시 삼기면 주민들의 민원은 지자체인 익산시가 예산을 투입해 도시가스관을 설치함으로써 해소된 사례로 위민행정의 본보기로 평가된다.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적극 나섰다라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었다. 특히, 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해결책 도출, 민원 해결, 주민 만족도 제고, 기대효과 등의 순서로 제작돼 설득력과 이해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 사라진 '마을 진출입로'...집단민원 조정 해결

철도 중앙선을 따라 100여 가구가 사는 안완산 마을 앞에 복선전철 공사가 시작되면서 철길을 사이에 두고 마을이 나뉘져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20여 분을 우회해야 해 주민들의 민원으로 임시다리가 설치됐다. 이 과정에서 임시다리가 개설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해당 가교를 임시로 활용하고 있지만 곧 철거 예정이다.

한편 마을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조성될 예정인데 안완산 마을의 진출입로 건설계획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마을 진출입로가 사라지면서 마을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철도공단은 도시계획도로에 마을 진출입로를 연결하기로 하였고, 영천시는 추가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 도시가스 사각지대?...익산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2019년 기준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평균 84.9% 수준으로 대도시권은 높은 수준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익산시 삼기면은 공급망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에 2014년도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도심과 근거리에 있지만 도시가스 공급망이 없어 93세대가 값비싼 다른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 익산시는 전북에너지서비스,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 예산 16억 원을 투입하여 공급관을 설치했다.

특히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비교해주며 도시가스 보급률 격차가 심하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주민 인터뷰를 통해 등유와 LPG를 사용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들이 공감대를 얻었다.

프로그램	생방송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1. 8. 5.	시청률	0.002

【총 평】

최근 핫 이슈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대책 등을 다루었다. 또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양궁 3관왕 안산 선수의 숏컷 헤어스타일 문제 등을 다뤄 주목도를 높인 기획이 돋보였다. 국회 문체위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논란에 대해 주요 내용과 쟁점, 전망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PICK&PICK에서는 최근 올림픽 선수의 머리모양을 둘러싼 논쟁과 게임 섀다운제 개선안, 코로나19 확산세 대책 등 수용자 관심사가 방송돼 주목도를 높였다.

특히 올림픽 4강에 진출한 한국 여자배구팀의 감동어린 경기를 시작부분에 소개해 흡인력을 높였고 마무리에서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할머니 환자와 화투를 치는 사진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이겨내자” 말해 공감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국회 문체위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논란에 대해 주요 내용과 쟁점, 전망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한 부분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개정의 필요성, 언론단체의 반발 이유, 여론조사 결과, 미국 의 사례 인용, 수정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소개해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구성이 설득력을 높였다.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중과실 추정, 정정보도, 열람차단 청구권, 기자에 대한 구성권 등이 규정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체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언론단체는 언론개혁이 아니라 언론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이중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 명예훼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또 다른 처벌이라는 입장이다. 정정보도 또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기자에 대한 구상권에 있어 오보에 대한 구상권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여론은 언론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2021년 7월에 진행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반여론을 보면 찬선이 56.5%, 반대는 35.5%를 나타냈다.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 판단이 애매하며 취재과정 중 법률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공익을 위한 취재, 언론의 감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있다.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층은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이에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여야간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PICK&PICK는 도쿄올림픽 3관왕인 양궁선수의 헤어스타일이 숏컷이라는 이유로 인해 일부 온라인에서 공격을 받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국내 유명 연예인들의 응원이 이어지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해당 논란이 정치권까지 이어졌다. 해외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온라인 학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페미논란이라는 자극적인 기사제목을 차용했다.

프로그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방송일자	2021. 8. 5.	시청률	0.014

【총 평】

2022년도 '대입 관리 방안 교육부 브리핑'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브리핑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식 및 국민 경제 이슈, 국가적 현안에 대한 정책이 다양하게 전달되었다. 특히 2022년도 대입수능에서는 모든 대학수험생에게 응시 기회를 제공하고, 수능 전 9월 중순까지 수험생과 관계자에게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해 11월 18일 수능 예정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는 '델타 플러스, 델타 변이보다 강력하다'에 대해 방역당국은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중증과 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모유 수유 중 코로나 백신 맞아도 될까'에 대해 우리나라 질병관리청과 미국 CDC는 수유부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미국 산부인과학회와 소아과학회 역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모유 수유를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구성 및 내용】

2022년도 '대입 관리 방안 교육부 브리핑'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주요 뉴스, S&News, 월드 투데이, 클릭K 등을 전달했다.

청년들의 더 나은 삶 '청년기본법' 제정 1년...청년정책 현주소에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계획과 실행을 점검한다.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청년 참여 확대, 고용촉진, 일자리, 창업, 능력개발, 주거, 복지 등 청년권익 증진 등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했다.

동남아 지역 중심...미중 경쟁 상황과 전망에서는 미중대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이다. 미국은 B3W (Build Back Better World) '더 나은 세계 재건'을 출범시키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신 실크로드 전략을 견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관계도 얽혀있어 복잡해 보이지만 어떤 위기 상황은 아니다. 우리의 국익을 내세워야 한다. 'S&NEWS'에서 혈액보유량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 혈액 개발에 힘을 쏟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 '탄소 국경세'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석탄 발전 비중이 40%인 우리나라는 탄소를 줄이는 방법에 속도를 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숙지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기술로 국제 표준을 주도하는 '그린수소 국제표준' 등에 대해 소개했다.

'클릭 K'는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청년, 현금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청년들의 구직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대상 확대,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내일채움 공제' 지원이 증가.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소득 기준 완화' 등을 소개했다.

이 밖에 대체공휴일이 광복절 등 4개 국경일에 확대 적용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한다는 소식을 전했다.